소중한 만남, 박용문 교수님

김병한 (연세대학교)

2016년 9월 20일, 소연 카페에서 박용문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용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박용문 교수님

매주 목요일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에 내려가 농사를 해요. 아내도 은퇴해서 같이 내려갑니다.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지요. 주중에는 이곳 종묘 옆 서순라길에 위치한 소연 카페에서 지냅니다. 몇 년 전에 평창동 집을 팔고 이곳 부지에 건축을 했어요. 1층은 카페 겸 전시장이고 2층에 부부가 주거합니다. 바리스타를 고용하고 집세는 내지 않으니 운영이 되는 편이지요. 종묘 주변 공사가 끝나면 손님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종종 놀러 와요.

또, 보통 월요일에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번은 은퇴한 수학과, 물리학과 교수님들과 이곳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박대현, 장건수, 김철구, 이재형 교수님들이죠. 우리들이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읽고 토론을 합니다. 철학책을 주로 많이 읽고 그 외에 공부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학창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태어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두메산골이었어요. 요즘은 주말 농장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때는 마차 들어오기도 힘들었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보냈지요. 지평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거리가 우리 집에서 4km에요. 평지가 아니라서 고개를 넘나들며 매일 뛰어다녔죠. 그 고생이 나중에 학문 연구할 때의 지구력을 길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더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1·4후퇴 때는 지평전투라고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 학교를 포함해서 지역의 많은 건물과 집들이 소각됐어요.

그래서 4, 5, 6학년 교육을 건물 안에서 받을 수 없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마니를 깔고 수업 받고 그랬죠. 당시 많은 시골학교들 형편이 비슷했을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장충고등학교를 다녔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다녔어요.

대학시절은 어떠셨나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녔어요. 물리학 전공이었지만 당시에는 수학 과목도 많이 들었어요. 물리과 교수님으로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안세희 선생님, 돌아가신 이철주 선생님, 수학과에는 정경태, 임정대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학부를 마치고 ROTC 1기로 입대했어요. 춘천하고 대구에서 복무했지요. 제대 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계속 공부했고요. 이론물리를 하고 싶었는데 전공하신 선생님이 없어 안세희 교수님께 실험물리를 공부해서 석사를 받았지요.

수리물리를 전공하신 계기가 있나요?

앞서 얘기했듯 이론물리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박사과정으로 유학가면서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의 수학·물리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과정에 입학했어요. 거기서 학과 선택은 수학과로 했고, 전공은 수리물리로 정했죠. 공부하면서 수학과 물리를 동시에 공부해야 했기에 시간이 좀 걸렸죠.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 물리학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게 된 거에요.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내는 인디애나대학교 아트스쿨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는데 우리 둘이 캠퍼스 커플로 꽤 유명했었죠. 기숙사를 오며 가며 데이트 했는데 결혼은 학교 채플에서 했죠. 완전히 인디애나대 커플이에요. 아내는 귀국 후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전 은퇴했어요.

박용문 교수님과 교수님의 부인
공예가 김승희 선생님

학위 후와 귀국 후 연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박사 학위 후 미국 IBM 왓슨 리서치 센터(Thomas J. Watson Research Center)에서 펠로우로 근무했어요. 매우 큰 연구소였는데, 인디애나 시골에서 미국 동부로 옮겨간 거죠. 거기 있으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 뉴욕대학교(New York Univ.) 등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고 연구역량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박사 학위 취득 1년 후인 1974년 8월에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했는데 그 당시 한국 대학의 책임강의 분량이 많아 고생했어요. 일주일에 16시간, 어떤 때는 18시간을 강의해야 했거든요. 요즘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3~4평 되는 연구실에서 연탄난로를 때면서 연구하곤 했어요.

귀국하고 1년 후에 프린스턴대학교의 아서 와이트먼(Arthur Wightman) 교수의 초청으로 곧바로 독일의 빌레펠트대학교(Bielefeld Univ.)에 방문해서 수학·물리 학제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1년간 연구를 하고 돌아 왔죠. 수학, 물리 통합 연구여서 유명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많이 만났고 이런 것들이 향후 내 연구의 자산이 됐죠. 당시 방문교수로 나가려면 초청하는 곳에서 항공권을 포함한 경비 전액을 부담해 주어야 가능했어요. 이후 프린스턴대학교와 프랑스의 고등과학연구소(IHES)를 두 번 방문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쪽에서 돈을 들여 초청하는 것이니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했죠.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는 PC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Preprint 논문을 만들고 복사해서 같은 연구 분야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외국에서 친분을 맺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하고 연락이 가능했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어요. 편지를 써서 좋은 논문 있으면 나한테 Preprint로 보내라고도 하고요. 전화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시는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 연구자가 많이 없었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연구자가 늘었지요.

내가 처음 편집위원(Editor)을 맡은 게 "Journal of Statistical Physics"라고 수리물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국제 저널이거든요. 그때 편집위원을 하면서도 누구나 다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세대 후에 많은 수학자들이 유학도 가고 귀국도 했어요.

1980년대 초에 대우학술재단에서 펀드를 받아서 여름 학교(Summer School)를 매년 개최 했어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하고, 젊은 수학자들을 한 20~30명 모아서 강릉에서 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도 대한수학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IMF로 대우학술재단이 없어질 때까지 10여 년간 지속했어요. 대우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학술활동을 한 것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내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 연구자들과 정기 세미나, 여름 캠프 등을 하는 게 좋았어요. 나는 대우학술재단 지원을 포함해서 학술재단 등에서 다행히 많은 연구지원을 받았지요.

1990년 대한수학회 학술상 시상식

당시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도 독보적으로 연구에 정진하실 수 있던 비결은 뭔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힘들었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자로서의 자존심. 해야지 어떡해요. 그리고 최소한 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강의가 너무 많다든가 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하는데 어떡해요. 나뿐만 아니라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다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어찌됐든 내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 한국 환경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나의 경우 초기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

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문제, 그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다 보면 논문 발표 수가 제한적이죠. 힘들어요. 1년에 한두 편, 어떤 때는 두세 편. 어떤 기간은 갭이 더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하다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2~3년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또 해도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순간에 '아! 이걸 쓰면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해결되고. 그런 경험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 때 그 희열은 말도 못해요. 다 가진 것 같지요(웃음).

그때는 우리나라 수학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초기단계였었잖아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기쁜 일이에요. 그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거기에 내가 밑거름이 되는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해요.

1992년 8월 대한수학회 회원 중국 방문

연세대 재직 시절 기억나는 학생은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고등과학원에 있는 김정한 교수를 빼놓을 수 없죠.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하고 대학원은 수학과로 와서 내게 석사지도를 받았지요. 당시 81학번 학생들이 잘했어요. 김정한 교수는 학생 때 발표를 시키면 매우 명쾌하게 했어요. 석사 졸업 후 미국 동부의 러트거스대학교(Rutgers Univ.)로 가라고 추천했지요. 거기에 수리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수리물리를 계속해 보라고 추천한 거였죠. 그런데 그 대학이 또 조합론(Combinatorics)를 잘하기로 유명했나봐요. 김정한 교수 아내이자 동기인 권정아 박사가 조합론을 공부하러 그곳으로 갔거든요. 아내 숙제 문제를 풀어주다가 전공을 아예 조합론을 하게 됐나 봐요. 하하. 전공을 바꾸다 보니 조금 미안해서였는지 연락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만나서 나는 상관없으니 계속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잘 정했어요.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 밖에 없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요. 예전엔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아카이브(arxiv.org)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한국의 전체적 연구 역량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지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한국의 수학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묻고 싶네요. 앞으로 필요에 따라 응용 분야 등 수학이 강조되는 분야가 계속 발전될 것이고, 그러한 발전은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한편으로 전통적인 수학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나는 지금까지 학자로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박용문 교수 약력	
1959.3~1963.2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65.3~1967.2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1967.9~1973.2	Indiana Univ. 수리물리학과 Ph.D
1974.8~2006.8	연세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6.8~현재	연세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
수상 실적	1976. 5 연세대학교 학술상 1987.11 제1회 한국과학상 1990.10 대한수학회 학술상

KMS